

- 절치, 측절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2소구치, 견치, 제1소구치 순서로 많이 존재하였다.
3. 치주낭 심도에서 치아의 어느 한면이 4mm이상되는 사람 수의 평균은 조사대상자의 42%였고, 그 발생빈도는 상악보다 하악에서 높았으며, 치아유형별로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중절치, 제2소구치, 측절치, 견치 순서로 높았다.
  4. 조사 대상자의 어느 한 치아에서 치은 퇴축이 1mm이상있는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94%였고, 발생빈도는 상악보다 하악이 높았고, 치아유형별로는 견치, 제1소구치, 제1대구치, 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순서로 높았다.
  5. 내원 유무, 치석제거시술 유무, 학력, 경제력에 따른 치태지수, 치석지수, 치은지수는 내원 경험자가, 치석제거시술 경험자가, 학력이 높은자가, 경제력이 높은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낮았으며, unpaired t-test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내원 유무에서만 유의성있는 차이( $P < 0.05$ )를 보였다.
  6. 치술질 횟수와 방법에 따른 치은지수는 1회 > 2회 > 3회, 좌우 > 혼합 > 상하순였고, ANOVA test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성있는 차이( $P < 0.05$ )를 보였다.
  7. 치술질 횟수와 방법에 따른 치은퇴축 발생빈도는 1회시 87%, 2회시 80%, 3회시 68%였고, 좌우시 84%, 상하시 73%, 혼합시 77%였으며, 상악보다 하악이 높았으며, 치아유형별로는 견치, 제1소구치, 제1대구치, 측절치, 중절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 순서였다.

## ● 한국인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수부 · 백더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학교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저자들은 한국인의 치주질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전원지역 주민 2,880명을 대상으로 개별표준화면담법으로 치주질환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 분석 검토하였다. 대다수의 주민이 텔레비전이나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서 치주질환에 관한 지식을 입수하고 있어서 치주질환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에 치과 의사나 치주과 전문치과 의사의 역할이 커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장애경험도는 연령과 함께 증가하였으며, 전원지역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치주장애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치주질환의 발생원인 요소와 예방법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치주질환관리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었다.

5. According to unpaired t-test, plaque index, calculus index, gingival index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history of scaling treatment, level of education and account of income, but wer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history of dental clinic. ( $P < 0.05$ )
6. According to ANOVA test, correlation between tooth-brushing (frequency, method) and gingiva index wa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5$ )
7. There was gingival recession of 87% subject in only on time brushing, 80% subject in two time, and 68% subject in three times. There was gingival recession of 68% subject in upper-low method and 77% subject in combination method.

## Surve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periodontal disease in Korean

S. B. Han, et al.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im of providing a basis for the management of periodontal disease among Korean, the authors had interviews with 2,880 inhabitants, living in urban and rural of Korea, and surveyed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Korean on periodontal disease. From the collected data, the authors could analyze information such as : level on individual knowledge on periodontal disease, namely, causes, symptoms and preventive measure, source of such information,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experienced impediment resulting from periodontal infection, level of the treatment facilities, reasons for non-treatment. It was proved that most interviewee obtained information on periodontal disease from television or other public advertising materials. Thus, dentists are strongly recommended to assume a larger role on dental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aged and rural people, experienced, in comparison to young and urban people, more cases of impediment caused by periodontal disease. In conclusion, dental health education on the causes and preventive measures of periodontal disease is urgently called for to public from early age.